

총선 1년앞...여권 잇단 실정 불구 민주당, 지지흡수 못해

차가운 지역민심, 대폭 물갈이 예고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지권을 바라보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차갑다. 여야 정치권 모두 어렵고 힘든 민생을 보듬고 미래로 나아갈 따뜻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좀처럼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으로 상징되는 정책적 소외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영남 인맥 독식 등으로 오히려 지역적 소외감을 깊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만간 이뤄질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입지 선정에서 광주가 배제된다면 이명박 정부 등 여권에 대한 지역 민심은 겹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도 3

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와 '형님 예산' 파문 등으로 지역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는가 하면 혁신도시 방문 등 현장을 자주 찾고 2012 여수엑스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민심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무늬만 호남'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탄생한다는 지역 민심에 한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혹독하다. 세종시 수정,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공약 뒤집기와 고물가, 전세대란, 구제역 파동 등 여권의 초대형 약재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권 창출을 위한 비전과 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 10년 여당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강력한 야당과 대안정당으로서 자리 매김에 실패, 민심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에 정체되면서 한나라당에 10%포인트 이상 뒤져 있는 것은 물론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예비 대선주자군의 지지율도 박근혜 전 대표 등 여권 대권주자군들에게 두 배 이상 크게 뒤져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1야당이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역 최대 현안인 과학벨트와 관련, 충청권 유치 당론을 고수해 지역 민심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야권연대'에 대한 기대감도 4·27 재보선의 진흙탕 싸움 등으로 인해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론' 확산으로

상징되고 있다. '도전과 응전'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 및 비전 창출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내년 총선을 겨냥, 지도부 눈치보기 및 줄서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반목과 불화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좀처럼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통해 10년 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재물을 발굴해야 한다는 '물갈이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지역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18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 총선에서는 거센 '물갈이' 태풍이 전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 후보 등록

내일·모레 이틀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선과 관련,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순천 선거구와 화순군수, 전남도의원 화순군 제2선거구, 목포시 라 선거구 등이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4월 13일) 오후 5시까지 관할 위원회에 도착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이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개 지역이다.

/최권일기자 cki@

5년간 당선무효로 선거보전비용 환수

광주·전남 14명 6억5000만원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한 사람은 14명에 달하며, 반환 액수는 6억5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등에는 후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게 돼 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선관위가 고지한 뒤 30일 이내에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제265조) 신설됐다.

반환 비용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불·탈법 선거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갈수록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그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는 전주연 전 광주 서구청장과 전형준·전완준 전 화순군수, 김인규 전 장흥군수, 유두석 전 장성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과 광역·기초의원 9명 등 총 14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6억50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 가운데 전주연 전 서구청장이 1억2800여만원으로, 반환 비용이 가장 많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낙마한 전완준 전 군수가 1억5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전 전

군수는 현재 비용반환이 진행중이고, 지난 2007년 함평군의회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K 후보는 아직도 2100여만원의 안배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당선무효자들에게 선거비용을 환수하더라도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훨씬 못 미치는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번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들어갈 비용이 대략 8억 14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번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전완준 전 군수에게 추정할 수 있는 비용은 1억5000여만원에 불과하다.

7억1000여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는 제공자에게는

알림

전국대회

56
1956-2011
제56회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오늘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 참가자격 :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연기간 : 4월 28일(목) ~ 6월 1일(수)

▲ 참가부문 : 음악·국악·무용·미술·작문

▲ 접수기간

- 음악·무용·국악 : 4월 11일(월) ~ 15일(금)
- 미술·작문 : 5월 16일(월) ~ 20일(금)

▲ 접수방법

- 방문신청 :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 우편신청 : 우편번호 501-71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
-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후 확정 4월 26일(화) 발표)

▲ 시상

- 우수학교 시상, 우수지도교사상 수여
- 국회의원상(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개인-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미술·작문)
- 단체-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장학금

- 국회의원상(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각 100만원 시상)
- 최고상 수상자 및 단체에 장학금 전달 (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 50만원)
- 합창, 합주제 대상 50만원 지급

▲ 문의 : <http://art.kjmedia.co.kr>
062-220-0541

| 주 최 | 광주일보사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협 찬 | SAMSUNG 삼성생명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CAST 송창의, 윤도현, 리사, 임병근, 허규

광화문연가

뮤지컬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www.musicalyounga.com

DJm 뮤지컬 광화문연가